

2015년 10월 12일 새벽말씀 (편집본)

할렐루야! 새벽이 돌아왔습니다.

어제 내가 “일에 대해서 이야기 해 주겠다.”고 했는데, 섬리사람들이 “무슨 일을 할까?” 잘 모릅니다.

“기도하는 것도 큰일이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찬양하는 것도 큰일이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만 생각하지 말고, 너희들이 찬양하고 노래하면 너희들끼리 서로 분위기가 달라질 것이다.”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 것도 큰일이다. 말씀을 전하면 너희들끼리 분위기가 달라질 것이다.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일들.”

흔히 선생이 말하기를 “그전에 이런 일이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했다. 바로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은밀히 역사한 것을 깨닫도록 해라.” 그랬습니다.

일을 해야 빛난다!

농기구도 일을 하고 쓰여질 때 빛이 나는 것입니다.

얼굴을 보면 빛나는 사람들은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입니다. 일을 안 하는 사람들은 빛이 안 납니다.

“어? 선생님, 그러면 농부들은 일을 많이 해서 얼굴이 새까맣게 탔는데 그것은 어떻게 됩니까?”

“그래도 빛난다. 얼굴이 검으면 검은 대로.”

일을 안 하고 놀기만 하면 얼굴에 희망이 없습니다. 일한 사람은 희망이 있고.

일하라!

결국 왕 앞에 서는 사람들은 일을 열심히 한 사람들이 왕 앞에 서게 됩니다.

“충성된 자가 왕 앞에 서게 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자기 옷 입는 것에 신경 쓰는 것도 일입니다. 그전에는 몰랐는데 하나님을 모시고 섬기니 ‘오늘 하나님을 만난다.’ 하고 항상 살아야 됩니다.

‘오늘 큰 잔칫집에 간다. 오늘 하나님이 나를 쳐다본다.’ 하고서 옷을 입으라는 말입니다. 그렇다고 비싼 옷을 사 입고, 돈도 없는데 빚을 지고 다니라는 말은 아닙니다.

옷 입는데 신경을 꼭 써요. 하나님께 나가는 몸들이니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하루 한 번이라도 쳐다볼까, 안 쳐다 볼까 한번 생각해 봐요.

하나님이 자기를 하루에 한 번이라도 쳐다볼까, 안 쳐다볼까 한번 생각해 봐요. 상식적인 문제입니다. 쳐다보겠습니까, 안 쳐다보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봐요.

옛날에 선생은 하나님이 나를 쳐다보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때는 내가 크지를 앓았습니다. 그때는 그냥 막 살았습니다. 머리로 길고 그냥 막 살았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서 말씀하시기를 “이왕이면 다홍치마라고 머리 좀 깎지 그래. 내가 너를 쳐다보면 무서워. 섬짓 섬짓하다.” 그랬습니다.

“돈도 없고, 머리 깎으러 진산까지 가려면 힘들고, 언제 깎아요?”

“머리가 이게 뭐냐? 사람들 앞에 보이지 않느냐? 사람들 볼 때도 보기 안 좋지 않느냐?”

“나 뿐만 아니라 시골사람들은 다 그런데요.”

“그것이 아니야. 그래도 머리를 깎고.”

“이래도 내 속은 짝 찼는데요. 하나님의 사상과 그리스도의 사상이 짝 찼어요.”

“짝 찼어도 사람들에게 보이냐? 안 보이지. 머리로 깔끔히 하고, 그리고 옷 차림도 깔끔하고 그리고서 속이 차면 더 좋지.” 그렇게 말씀했을 때, 그때 머리를 깎고 깔끔하게 지냈습니다.

교회에 오면 깔끔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초대를 받고 오는 것입니다. 주일날과 새벽에. 그러니 깔끔하게 하고 와요.

원래 멋쟁이들은 추워도 멋쟁이 옷을 입고 다닙니다. 막 뒤집어쓰고 안 다

닙니다.

스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면서 하늘을 대하기 바랍니다.

“이런 것도 일이다. 하나님을 대하는 일이다. 옷에 신경 쓰고, 머리에 신경 쓰고, 신발에 신경을 쓰도록 하라. 그리고 깔끔하게 하고 다니도록 하라.” 했습니다.

하나님을 대하는 것이니까 아예 심플하게, 깔끔하게 해야 됩니다.

“이것도 일이니라.”

그리고 말하는 것도 큰일입니다. 말을 잘 해야 됩니다.

말할 때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확인도 않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확인도 안 하고 말하는 사람은 쓰겠습니까?

심판을 확인 안 하고 해버릇하면 안 됩니다.

무슨 일이 있으면 선생님께 딱 보고하는 것입니다.

“선생님, 이런 소문이 들립니다. 선생님은 이런 소문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나에게 물어보지 않고, 자기들끼리 씨불씨불씨불 자꾸 이야기를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자기 말은 꼭 심판 받는다. 말을 잘못된 것은 심판 받는다. 남을 오해한 말이나 함부로 한 말은 심판 받는다.” 하셨습니다.

우리들은 사람들에게 너무 말을 함부로 함을 받았습니다. 속상하게 하는 말을 받았습니다.

우리 보고 “이단이다.” 하고, 우리 보고 “지옥 갈 사람들이다.” 우리 보고 “적그리스도 모임이다.” 그랬습니다.

그렇게 무지한 말을 한 사람들은 언젠가는 내 앞에서 회개치 않으면, 회개하고 형벌 받고 탕감 받지 않으면 구원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안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런 못 박힌 말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회개하는 것이 제일 어려울 것입니다. 와서 말씀 배우는 것도 좋고, 다 좋은데 그것을 회개하려면 너무너무 힘들 것입니다. 왜냐하면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한다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네가 잘못된 것을 알았구나. 그러면 이제는 잘못의 대가를 받아야지.” 합니다.

무엇을 잘못했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잘못에 대한 대가를 받고, 형벌을 치른 다음에 오는 것입니다.

그 형벌은 무엇이 될지 모릅니다. 어떤 것은 7년 10년이 걸리고, 어떤 것은 자기도 다른 사람을 통해서 그런 오해되는 소지에 닥치게 되며 그 대가를 받는 것입니다. 억울한 일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올라오는 것입니다.

우리 섭리사는 말들을 조심을 많이 해야 됩니다.

말을 함부로 하지 말고, 꼭 말 할 일이 있으면 나에게 물어보고 허락하면 말하라는 것입니다.

누구의 모순된 일을 봤을지라도 허락하면 말을 해요. 자기네끼리 쑥덕쑥덕 하면서, 그래서 많은 생명들을 말로써 심판하고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올 때까지 말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너희가 형제를 판단할 권이 없느니라. 심판자가 아니기 때문에.”

외부에서 그러는 것보다 내부에서 모두 그러니까. 모르고.

“내가 말하는 것만 이야기해라. 그리고 확인된 것만 말하고.”

누가 잘못된 것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 물어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있었나 하고.

“말해도 좋습니까?”

“말하지 말라. 내가 그런 일이 있어도 말하면 안 된다.” 그러면 말하면 안 됩니다. 알겠어요?

자기 말로 자기가 심판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자기들의 잘못은 자기가 심판 받는다.”

여러분들끼리도 서로 말들을 조심하고 그래야 합니다.

말 때문에 고통을 받고, 말 때문에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절대로 말을 함부로 해서 안 됩니다.

“너희가 말을 하되 심판 날에 심판 받을 것을 생각하라.” 했는데, 오늘이 심판 날이라는 것입니다. 그 말을 함부로 한 사람들은 오늘 심판 받는 것입니다.

니다.

매일 하나님은 칼을 가십니다. 매일 심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내가 심판을 잘 안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면 음식 먹고 쓰레기를 안 치우는 격이기 때문에 나중에는 썩는 냄새가 풍긴다. 빨리빨리 쓰레기 버리듯이 심판할 것은 심판을 모두 해라. 놔두면 계속 번져간다. 말이라는 것은 계속 그런 줄 알고 번져간다.” 하셨습니다.

“말을 하는 것도 큰일이니라.” 했습니다.

“말을 잘못하면 일을 저지르는 것이니라. 말을 잘 하도록 하라. 말을 잘 해야 된다.”

그렇지 않습니까?

너희들끼리 속상하게 하고, 말을 함부로 해서 섭리를 나가고, 막 주저앉고 이런 일이 많습니다.

“말을 함부로 하지 마요. 세계 각 나라가 마찬가지다. 말을 함부로 하지 말아라. 말로써 천 냥 빚을 갚고, 말로써 상한 심령을 돌이키게 한다. 말을 함부로 하지 마라.”

말을 함부로 해서 지금 교회 안 나오는 사람이 많습니다.

“모두 나오라. 형제들에게 말 함부로 함을 받은 것은 내가 이와 같이 속 시원하게 끌려줄 테니까 교회 나오라. 내가 다 책임질 테니까.”

알겠습니까?

그리고 누가 행여 죄를 지었을지라도 본인이 메시아가 아니면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 주관권 바깥에서는 혹시 모르지만, 이 안에 있는 사람을 두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그 인격은 깨지는 것입니다.

형제의 죄를 두고 덮어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죄도 없는 사람에게 그러합니다. 내가 누명을 많이 씌워서 너무 화가 나니까 더 거기에 대해 눌러서 말을 하는 것입니다. 누명을 얼마나 많이 썼습니까? 그래서 내가 그러합니다.

“좋다. 내가 죄를 진 것이 있으면 내가 하나님께 책임을 진다. 나는 끄를 수 있으니까. 그러나 그 외에 나를 누명 씌운 것은 다 책임을 져라. 이 시대

가. 나를 괴롭힌 것은 이 시대가 다 책임을 져라. 이 시대가 지나가기 전에 너희들이 다 받으리라.”

믿습니까?

‘말’도 큰일이다.

그리고 일들이 무엇인가 하니 “자기 위치에 전부 일들이 있다. 자기 위치와 자기 사명지에 전부 다 사명들이 있고, 일들이 있다. 놀지 말고 일을 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했으니까 모두 여러분이 놀지 말고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나는 60이 넘었으니까 이제 놀아야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젊었을 때 하나님께 무슨 일을 그렇게 많이 해 놓았습니까? 하나님께 많이 일을 했다는 사람에게는 쉬는 시간을 줄 것입니다. 그러나 나이를 먹으면 나이를 먹은 대로, 70이면 70, 80이면 80이라도 일을 할 것이 있습니다. 일이 없다고는 못 합니다.

죽을 때까지 일을 해야 됩니다.

죽을 때까지 호흡하는 일을 할 것이고, 죽을 때까지 건강을 살피야 될 것이고, 죽을 때까지 밥을 먹어야 됩니다. 다 일입니다. 먹는 것도 일이고, 자는 것도 일이고.

여러분들이 자는 것을 안 해 봐요. 그 이튿날 모든 프로그램이 깨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는 것도 일이니까 꼭 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쉬는 것도 일입니다. 꼭 쉬어야 할 때는 쉬어야 됩니다.

“일 다 해 놓고 쉬려면 안 된다.”

하루에 일을 하면서 쉬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때그때 쉬는 시간이 있다. 쉬는 시간에 쉬어라. 잠을 잘 때는 잠을 꼭 자라. 일어날 때 꼭 일어나는 것도 큰일이다.”

그때그때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일은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다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전도하는 일, 가르치는 일, 그리고 관리를 하는 일, 형제 사이를 풀어주는 일, 그리고 아픈 것을 싸매 주는 일!

본인이 아픈 것을 본인이 못 싸매 줍니다. 본인이 못하는 것입니다. 옆의 사람이, 싸매 줄 사람이 싸매 줘야 됩니다. 이런 일들이 큼니다.

그리고 단상의 일, 청소하는 일,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일!

하나님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만 하는 입장에서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는 “너희가 나를 기쁘게 하는 일만 하지 말고, 형제들 기쁘게 하는 일도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만 살지 말고 형제를 위해서도 살아라.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살아라.”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좀 살피 줘라. 내가 신경 쓰는 사람을 살피라.”

내가 신경을 쓰는 사람을 살피 주면 살피 주는 사람도 그와 더불어 기쁨을 누리고 이상을 누리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각각 일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일을 안 하고서는 사람이 전진할 수가 없습니다.

마치 잡초 숲을 가는데 풀을 쳐야만 걸어갈 수가 있듯이, 인생은 일을 해야만 전진할 수가 있습니다.

일을 해야만 전진을 할 수 있지, 일을 하지 않고서는 전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월남에서 산악작전을 할 때, 정글 칼이 있습니다. 정글을 막 끊고 들어갑니다. 정글 칼로 딱 자르고, 가시덤불을 잘라놓아야 그곳을 뚫고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일을 하면서 전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큰일은 하나님께서 해 주시는데, 작은 일은 우리가 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기를 “큰일은 내가 해 준다. 그러나 작은 일은 너희들이 해야 된다.” 하십니다.

집에서도 큰일은 아버지, 어머니가 해 주고 작은 일은 본인들이 하는 것이 아닙니까. 계통적으로 크고 작은 일을 합니다. 장남, 차남 이렇게 모두 일을 하는 것입니다.

큰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크게 감동 주고, 이런 것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작은 감동 받는 것은 본인들이 열심히 해서 감동되고 결정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일의 철학입니다.

큰일을 보면, 구약의 역사는 구약의 일, 신약에서는 신약의 일! 이 <구약>이라는 역사가 없었으면 <신약>이 솟을 수가 없었고, 신약이라는 역사가 없으면 <성약>이 솟을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됐기 때문에 그렇게 일이 된 것입니다. 구약의 세계는 유대인들이 말을 안 들어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불신하고 그래서 그렇지, 구약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나름대로 섭리를 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구약 역사를 배타시하고 배척을 하면 안 됩니다. 또 신약시대도 예수님을 죽이고 그래서 그렇지, 신약역사를 하나님께서 해 왔습니다. 이와 같이 큰일을 하셨습니다.

신약역사가 있음으로 이 시대의 역사가 주어진 것입니다. 아버지가 있지 않고서는 자녀를 낳을 수가 없습니다. 할아버지가 없이는 아버지를 낳을 수가 없습니다. 이와 같이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조각으로 비유를 들겠습니다.

조각 작품, 돌 조각을 할 때 큰 돌을 산에서 떠옵니다. 떠다 놓고 그 나름대로 큰 것을 대충 다듬습니다. 큰 조각을 가져다가 조각을 뜨려고 대충 대생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약입니다.

그 다음에 신약 때는 폭폭 잘라내고 조각을 막 했습니다. 그런데 완성을 못 했습니다. 그리고 성약 때는 그 조각을 가지고 세밀하게 다듬고, 샌드페이퍼 질을 하여 다듬고, 얼굴 모양을 내고 세밀하게 해서 그 형체를 완벽히 드러내는 일을 성약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약시대 때는 뭔가 완벽하게 일을 해야 됩니다. 듣는 대로 대충 대충 “누가 무슨 일이 있대. 무슨 일이 있대.” 이렇게 미친 사람들 얘기하듯이 해서는 안 됩니다. 대충해서는 안 됩니다. 완벽하게 그 형상이 나오도록, 성약 역사라는 형상이 나오도록,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형상이 나오도록, 그리스도라는 것을 볼 수 있도록 그런 행실을 하며 그렇게 완벽하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일이라는 것은 꼭 꼭 정상적인 일을 해야 됩니다.

선생님이 해 보니까 체질은 밥을 안 먹어 버리면 한 끼만 먹어도 괜찮습니다. 나중에 가서는 이틀에 한 끼 먹어도 괜찮더라고요. 그러나 나중에 가서는 이 몸을 견딜 수가 없더라고요. 나중에 탈진해 버리더라고요.

이와 같이 여러분들 체질이 일하는 것도 안 배우고, 안 해버릇하면 그렇게 되어버립니다. 그러나 일을 해버릇하면 엄청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일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끝이 없습니다. 나도 요즘에 열심히 일 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아침에 여기서 설교하고 끝나고 나가서 운동하러 나가려다가 못 했습니다. 운동을 잠깐이라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시작이 반이라고 하면서 컴퓨터에 손을 딱 댔습니다. 그러고서 10시까지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밤 10시까지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 끝이 없다. 일은 역시 끝이 없다.”는 말이 입에서 나왔습니다. “일은 끝이 없다.”

그러나 어제 아침에 한 말대로 “그래도 일은 해야 된다.”했습니다.

일을 하면 반드시 얻는 것이 있습니다.

“아, 일이 끝이 없어. 내가 먼저도 그러더니 또 그렇게 되었는데. 일이 끝이 없네.” 그래서 할 수 없이 광고를 했습니다. “나 일 좀 적게 하게 해 주나라.” 선생님 좀 편안하게 잘 있게 해 달라고 해놓고서 그들이 나에게 일거리를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 좀 편안하게 할 수 있도록 하라. 너희들이 할 일을 왜 나에게 다 보내놓고 있느냐?” 그러니까 뒤죽박죽 돼서 일하기 곤란합니다.

부엌에 오기 전에 밭에서 무를 뽑고 배추를 뽑았으면 대충 거죽과 뿌리를 끊어내고 가지고 와야 됩니다. 그것을 해 주고 오라는 것입니다. 뿌리 채 뽑아서 부엌으로 가지고 오면 일거리가 너무 많습니다. 쓰레기가 부엌에서 또 나간다는 것입니다. 밭의 쓰레기는 밭에다 버리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가지고 상 중 하로 나누어서 나에게 보내 줘라. 그러면 내가 즉시즉시 급한 것부터 해나간다. 그러면 일을 한다.”

일도 너무 많으면 겁이 나서, 너무 질려서 못 합니다. 너무 많으면 못하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가 있어야 해 볼만 한 것입니다. 일이 만질만질할 때 일을 많이 하는 것입니다. 일이 덮쳐 버리면 일이 너무 많아서 포기해 버립니다.

여러분들도 일거리 너무 많지요? 개인 관리하는 데 한도 끝도 없고, 말씀 전하는 데도 끝이 없고, 교회 깨끗하게 하려면 한이 없습니다. 그래도 해야 됩니다. 하면서 일을 열심히 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각 나라 사람들, 일을 할 때 철통같이 하고, 그리고 대담하게 하고, 과감하게 하고, 갈피 나게 하고 그렇게 해 주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그렇게 하도록 하십시오. 그렇게 안 하면 일이 안 되는 것입니다.

전도하는 것도 그냥 갈썩갈썩하면 그것 밖에 안 됩니다.

“저것 해 봤자, 저것 100년을 해 봤자 별 특별한 것이 없다.” 그렇습니다. 과감하게 대담하게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씀을 마칩니다.

일에 대해서 들으니까 많이 이해가 되었습니까?

그러면 모두 기도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기 도>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그리고 책망도 하고, 칭찬도 했습니다.

일 열심히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하루에 한 번 우리를 쳐다보겠느냐, 안 쳐다보겠느냐고 말씀도 했습니다. 주께서 쳐다보시고 동행하시고 함께 한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모든 말하는 것과, 옷을 입는 것과, 행실 하는 것들과, 그리고 각종 기도하고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일들과, 전도하는 일들과, 가르치는 일들과, 그리고 섭리역사의 전반적인 일들과, 전 초하는 일들을 하라고 했습니다. 이런 모든 일들이 자기 주관권에 있을 때는 거기에 일들이 있습니다. 내가 여기 있는데 천리 길 밖에 일이 있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 천리 길에 있는 것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기도 해야 됩니다.

“내가 이 자리에 있으면 내 일은 내가 해야지 누가 하느냐?” 하나님은 항상 큰일을 해 주시고, 작은 일은 우리가 하라고 했습니다.

임무를 맡은 사람들도 큰 사람들은 큰일을 하고, 작은 사람들은 작은 일을 하면서 교회에서도 그렇게 해 나가라고 했습니다. “작은 일을 왜 교역자들이 하고 있느냐? 큰일을 해야지. 그리고 작은 자는 작은 일을 하라.”

이와 같이 큰 머리를 보고서 나가라고 했습니다.

삼위의 능력과 권능이 이들에게 함께하며 영원할지어다.
아멘.